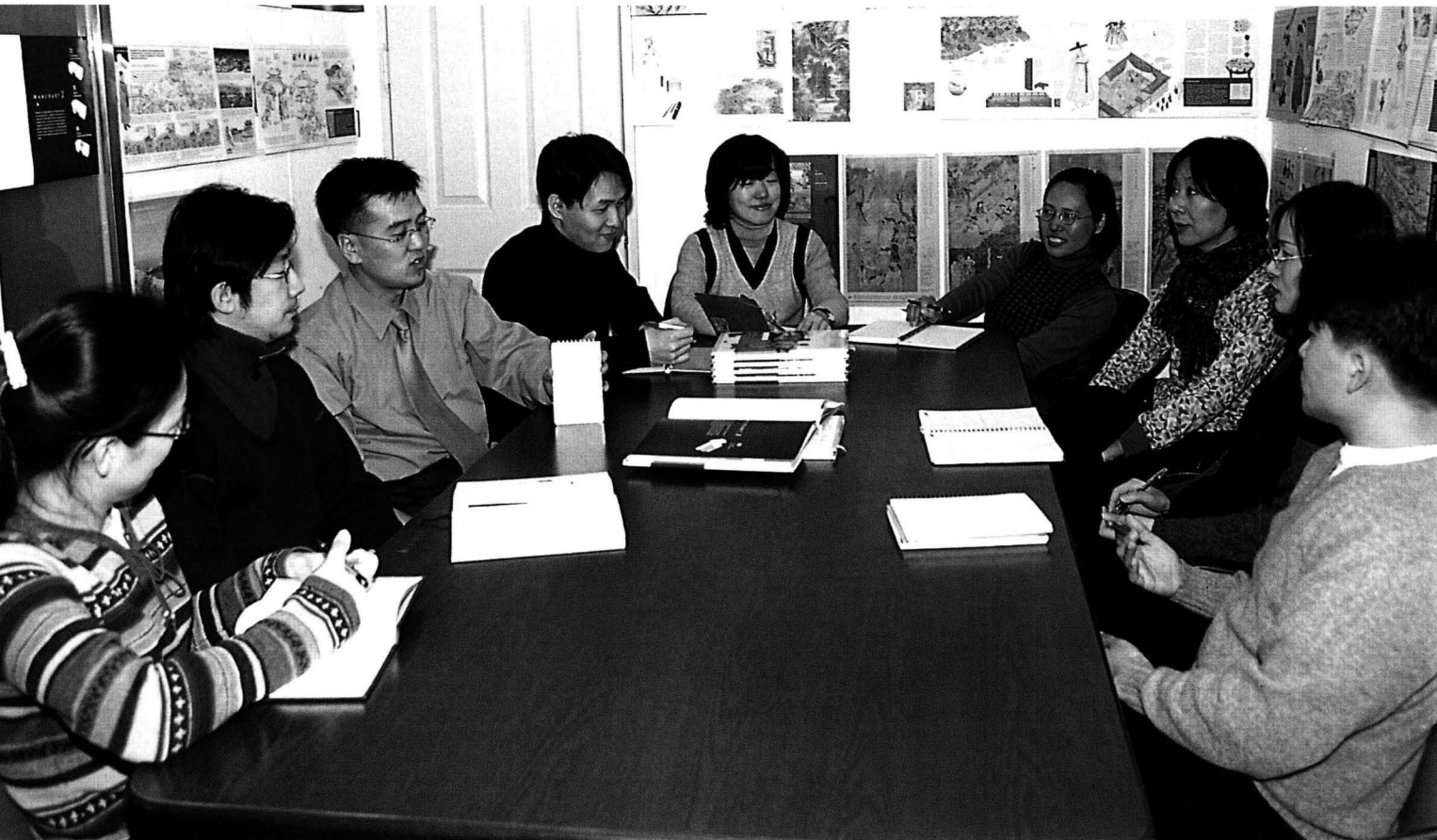


# 아동. 청소년. 인문. 삼두마차 끌고

## 평.상.심.으로 일관한 88번의 계.절.순.환.



왼쪽부터 디자인팀 박미경 과장,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디자인팀 백창훈 팀장, 제작팀 박찬수 차장,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디자인팀 이동준, 이정민, 관리팀 안석희 차장, 강말실 대표, 아동 청소년교양팀 정은숙 대리, 최일주 대리

사계절출판사의 22년 행보는 마라톤과 견줄 만하다. 전력질주를 거듭하며 성장하는 경쟁자도 만났을테지만 사계절은 늘 평상심을 유지하며 달렸다. 목표를 원거리遠距離로 설정한 후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은 것, 그 의지가 사계절의 22년을 이끌어 온 축이 됐다.

“본래는 진보적인 이념들을 대중적으로 펼치자는 뜻에서 사회과학서를 주로 출간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막시즘의 당위성도 줄어들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보다 대중적인 사회과학서를 기획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분야를 넓혀서 어린이, 청소년 등 다른 분야의 출판까지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1987년에 남편 김영중 씨로부터 사계절을 이어받은 현 대표 강말실(47) 씨는 민주화를 비롯해서 학문의 자유로움, 분단 조국, 독재 이데올로기 문제 등 본래 관심을 버리지 않은 채 아동, 청소년 출판을 확장시켜 나갔다. 물론 이후에 나온 책 중에는 순수 아동, 청소년 책도 있고 사회상, 시대정신 등을 적극적으로 담은 어린이책도 있다. 1989년에 출간한 남북어린이 시리즈가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다.

“북한 아이들도 우리들처럼 동화를 읽고 자란 아이들이잖습니까. 그 친구

들이 도깨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 주기를 바라며 기획한 책입니다. 청소년책 중에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이기 쉬운 아이들에게 역사를 보는 새로운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한 교실밖 시리즈가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인문서까지 꾸준히 출간하면서 사계절의 삼두마차를 어린이, 청소년, 인문 이 세 분야로 구축했습니다.”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다. 당시에는 청소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서점에서 청소년 서가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청소년 출판시장에 활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1980년대에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이 교사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책을 읽혀야 한다는 운동을 펼치고 권장도서를 꾸준히 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때 유통구조는 지금과 달랐지요. 아동물

은 방문판매, 도매상, 특판 형식의 유통구조만 있었지 단행본 유통시장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서점판매가 어려웠죠. 아동물과 청소년책을 유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어려웠습니다.”

강 대표는 삼두마차를 몰면서 늘 두 가지 출판철학을 고집했다. 사회의 '시대정신을 담자,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고 오래 살아남는 책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역사의 대중화를 선도했다고 평가받는 《역사신문》, 엄밀한 고증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사를 밝히고 역사를 발견한 《생활사 박물관》 등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로 주목받는 책들은 모두 이런 뜻으로 낳은 자식들이다.

단기간에 승부를 결정짓는 베스트셀러 생산을 지향하지 않고 꾀직하면서도 생명력 있는 책을 꾸준히 내놓자는 출판철학 중에는 '독자'와의 '동행'을 실천한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199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자들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 마당을 마련, 어린이, 청소년 모니터링 그룹을 모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독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한 홈페이지는 사계절이 갖는 독자지향성을 단번에 보여준다. 역설적이지만 1980년대 가장 흔한 다방 이름이었던 '사계절'을 출판사 상호로 붙인 이유 역시 당시 시대를 상징하면서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의도였으니 사계절의 독자지향성은 이미 설립 당시부터의 모토였다고 볼 수 있다. 사계절은 이밖에도 홍명희 문학제, 전국 어린이·어른 독서감상문 대회, 사계절문학상 등 출판사 자체적으로 만든 행사를 통해 독들과 직접 대면하는 방법도 꾸준히 모색하고 실천한다. 책을 파는 데 국한하지 않고, 시장을 만드는 데도 열의를 보이는 것이다. 강 대표의 책에 대한 철학 또한 뚜렷하다.

“책은 유기체입니다. 책을 만들고 그 책이 알아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출간 전 과정부터 출간 이후까지가 모두 태교 대상에 포함되지요. 출간되면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개정도 해야 하고 표





....책은 유기체입니다....책을 만들고....그 책이 알아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출간 전 과정부터.... 출간 이후까지가 ....  
 모두....태교 대상에 포함되지요....

지도 새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성장할 시기가 되면 시의 적절하게 키워주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요. 성장한 후에도 오래도록 살아남으면서 제 역할을 해내는 책을 만드는 것이 출판사와 편집자의 역할입니다.”

한 권의 책이 생명의 탄생처럼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그것이 사람 곁에서 친구, 스승, 예언자, 때로는 정보제공자가 되어 사람 못지않은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 대표는 직원들에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좋은 책을 만들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강조한다.

“추상적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생각하면서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페이지를 가지러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출판사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심하지 말라고 충고하죠. 사람들은 낮을 가리기 때문에 타인에게 냉정해지기 쉬운데 마음을 열고 한발짝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공식적인 목소리보다는 우리 출판사에 전화를 건 사람이 편안히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호감이 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강조하지요.”

사계절은 출판사치고는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 현재는 영유아, 유년, 아동청소년문학, 아동청소년교양, 생활사박물관, 디자인, 제작, 마케팅 이렇게 여덟 부서에 총 30여 명. 비교적 안정적인 출판사가 10~15명의 직원을 두는 점을 감안하면 두세 배의 살림규모다. 강 대표는 각 부서의 회의 때 모두 참석을 하고, 저자와의 만남, 외부의 다양한 행사를 일일이 챙기고 독려하면서도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추진 상황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다. 그들이 오래 남을 책을 탄생시키도록 기다려주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2004년에 맞춰 출간할 책은 청소년 주니어 클래식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국기론 등 고전으로 여기는 이야기들이죠. 어른들은 이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이....생명의 탄생처럼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그것이 사람 곁에서 친구, 스승, 예언자.... 때로는 정보제공자가 되어....

사람 못지않은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테이프를 끊고 독자들 곁에 설 책은 윤소영 선생님이 쓴 《종의 기원》이구요. 그 외에 브라보 시리즈, 1318 교양문고 등을 꾸준히 낼 예정입니다.”

최근 서산사에서 열린 ‘한 도시 한 책 읽기’에서는 황선미 씨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선정됐다.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책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고 출판사 직원들과 강 대표는 오래 전에 출간

한 자신들의 책이 지금까지 줄곧 좋은 책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데서 다시 한 번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사계절출판사의 2004년 계획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주출판단지로 이사를 한 후 출판사의 전반적 경영전략과제를 실행하고, 내부적 시스템을 수정해 나가는 것 외에 지금까지 세상에 내놓은 책들이 보내오는 좋은 소식들을 훈풍삼아 마라톤 완주의 길을 달릴 예정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직원이 말하는 사계절출판사

### 기.다.림.을.아.는.출.판.사 사.계.절.



최일주 | 기획편집부 아동·청소년팀 대리

사계절에서 편집자로 일한 지 3년이 되는 최일주(31) 대리는 편집부 동료들은 물론이고 강 대표에게 ‘지각대장’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회사에서 10분 안 쪽 거리에 살면서도 9시 30분 출근시각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최소한 부분이 많지요. 사장님은 직원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 번 생각한 후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스무 번 말씀하실 것을 한 번 말씀하시죠. 그만큼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믿어주십니다. 부하직원이라 해서 막 대하는 일이 절대 없죠.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일을 맡고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지각대장’으로 불리면서도 자기 글을 쓰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편집자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사계절의 특징을 ‘가족적인 분위기’로 설명하는 그는 그 중심에 강압적 사장이 서 있다고 밝힌다.

“그렇다고 사계절을 적당히 일하면 되는 출판사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출판사라고 하면 소규모 가내수공업 회사로 받아들이는데 사계절만큼 튼튼한 기업 시스템을 가진 출판사도 드물지요.”

직원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자유로움과 기업의 튼튼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사계절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에 어느 기업 못지않은 신속함과 정확한 일처리를 자랑한다.

그렇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은 법. 사장이 사원을 신뢰하며 일을 맡기니 사원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감도 크다. 결국 직원들을 신뢰하는 오너와 오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직원들의 책임감이 더 좋은 책을 완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최일주 씨는 그것이 지금까지 사계절이 통런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면서 지난해 사장이 준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한 고마움을 뒤늦게 표현하기도 했다.

“사계절 출판사는 기다릴 줄 아는 출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출간 일정이나 출간종수에 예민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요. 그제 저를 3년 동안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